

국어 산책

—

신문 언어, 《독립신문》에 길을 묻다

—

홍성호

한국경제신문 기사심사부장(부국장)

“신문에서 자주 쓰는 말 중에 ‘세금 폭탄’이란 게 있는데, 아주 위험한 표현입니다. ‘세금=폭탄’이란 구조화를 통해 세금을 걷는 국가는 악당이고 납세자는 피해자라는 인식을 심어 줍니다. 틀을 바꿔야 합니다. 세금은 ‘모두의 재산’이고 ‘국가의 생계 비용’이란 개념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그래야 비로소 세금을 내지 않는 사람이 악당이 되는 거죠.”

지난 4월 23일 저녁 서울 공덕오거리 인근 한 건물에 자리 잡은 한글문화연대 강의실. 인지언어학자인 나익주 전남대학교 영미문화연구소 연구원이 ‘생활 속의 은유’를 주제로 일상에 스며든 은유의 사례를 풀어냈다. 어렵게 느껴지던 은유의 세계에 대해 이론과 일상의 언어를 넘나들며 설명하는 나 연구원의 말에 참석자들은 연신 고개를 끄덕였다.

신문 언어의 우울한 미래

이론은 배우기가 힘들어서 그렇지 창의력의 원천이 되고 다양한 응용을 가능하게 해 주는 자양분이다. 특히 현업에 있는 사람에겐 더욱 그렇다. 비록 짧은 시간이었지만 ‘따끈따끈한’ 지식을 접한 뒤 신문을

보니 평소에는 흘려보냈던 은유가 곳곳에서 눈에 띈다.

“명품학교.”(이 역시 나 연구원이 소개한 예이다.) “○○대학은 기업이 원하는 맞춤형 인재를 공급하기 위해…… 명품교육을 전개…….” “이른바 ‘명품학교’로 불리는 서울 지역 사립 초등학교에서…….” 이런 말들에는 학생을, 교수를, 학교를, 나아가 교육을 상품화하는 복선이 깔려 있다. 학생과 학교는 ‘팔려야 할’ 대상으로 전락한다. ‘팔려야만 살아남는다’는 명제를 은연중에 주입해 교육을 생존 경쟁의 장(場)으로 몰아붙인다. 인성이나 전인 교육은 후순위가 된다.

신문 언어에서 은유가 늘어나는 것은 어찌 보면 그 자체로 경쟁의 산물이다. 신문에서 조어나 약어 등 넓게 보아 은유의 일종인 수사적 표현이 넘쳐 나게 된 것은 1997년 말 외환 위기 때부터였던 것 같다. 건국 이후 최대의 국난이라던 외환 위기를 겪으면서 한국은 경제 전반에 걸쳐 엄혹한 구조 조정을 겪을 수밖에 없었다. 신문에는 전시와 같은 상황을 반영해 전쟁이나 전력(戰力)을 염두에 둔 ‘연봉 錢爭’, ‘외국 錢力’ (각각 ‘돈 싸움’, ‘돈의 힘’을 암시하는 상징어), 외환 자금이 고갈된 것을 나타낸 ‘弗難 집’ 같은 ‘요상한’ 표현들이 연일 쏟아져 나왔다. 전화위복(轉禍爲福)을 연상케 하는 ‘錢禍爲福’(환율이 올라 오히려 수출이 늘어나는 효과를 의미), 외화가 부족해 어려움에 처한 상황을 나타내는 ‘錢錢공공’ 같은, 동음이의어(갈랑부르) 수법을 활용한 은유들이 이틀이 멀다 하고 지면을 장식했다.

그러나 좋게 봐서 ‘시적 언어’의 기발함으로 독자 눈길을 사로잡는 데는 효과를 봤을지 모르지만 대부분 일회용에 그친 말들이다. 우리말의 조어법에서 벗어난, 국적 불명의 표현에 지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중에서도 압권은 아마도 ‘IMF’가 아닐까 싶다. 그 뿌리가 얼마나 깊었던지 요즘도 ‘1997년 말 IMF 때’, ‘IMF를 맞아’, ‘IMF 때문에’, ‘IMF

를 당해, 'IMF를 극복하고' 식으로 쓰이곤 한다. 물론 잘못 쓰는 말이다. IMF는 국제통화기금을 가리키는 영문 약자이다. 외환 위기를 벗어나는 과정에서 국제통화기금의 역할이 워낙 컸기 때문에 사람들의 인식에서 'IMF=외환 위기'인 것처럼 자리 잡은 듯하다. 일종의 환유인 셈이다. 하지만 IMF의 도움으로 우리 경제가 혹독한 '군살빼기' 과정을 거쳐 외환 위기에서 벗어났다는 점을 감안하면 사실을 호도하는 잘못된 표현이다. 입말에서야 그럴 수도 있겠거니 하다가도 그것이 막상 기사의 일부로 쓰일 때는 당혹스럽다.

식물국회, 방탄국회, 총풍, 여풍, 쪽지예산, 관피아, 정피아, 불통장관, 꼭두각시 정부, 짜고 치는 고스톱, 사오정, 오류도, 88만원세대, 삼포세대, 오포세대……. 사실을 전달하는 것으로 신문 언어의 역할은 충분하다. 그러나 현실은 은유와 상징이 난무한다. 신문 언어가 지나치게 은유화할 때 자칫 우리말 어휘 체계까지 어지럽혀 국어 질서를 훼손하지 않을까 걱정이다. 더 큰 문제는 신문에서 만들어 내는 '관습화된 은유'가 일상의 사고를 지배하고 고착시켜 당연시하도록 이끄는 것이다. 사실의 언어와 은유화한 언어 사이의 갈등과 다름, 그것이 신문 언어의 미래를 엿볼 수 있는 열쇠 가운데 하나가 아닐까.

이윤기 선생이 걱정된 '명사의 사막화'

신문 언어뿐만 아니라 우리말이 건강하게 뻗어 나가기 위해서는 개념어가 발전해야 한다는 지적은 시사점이 많다. 작가이자 신화 연구자이셨던, 돌아가신 이윤기 선생은 오래전에 한 월간지에 '똥집 일화'를 소개하면서 우리말 명사가 사라져 간다고 지적한 적이 있다.

술집에서 우리는 닭의 모래주머니 구운 것을 즐겨 먹었지요. ‘똥집, 똥집’ 하기는 싫고 ‘모래주머니’라고 하기엔 너무 길고 해서 주인과 ‘꼬꼬집’이라고 부르기로 합의했습니다만 그건 우리 마음에 지나지 않았지요. 주인은 주방 쪽으로 돌아서면서 이랬지요. “똥집 한 사라 (접시를 뜻하는 일본말-필자 주)”

복잡한 사회에서는 분화된 언어가 필요하다. 그런데 국어에서는 새로운 우리말 창출은커녕 있는 말조차 외래어의 홍수 속에 사라져 가는 현실을 꼬집은 것이다. 그는 이를 ‘명사의 사막화’라고 비유했다.

명사가 사라져 간다는 것은 개념어가 부족해진다는 뜻이다. 대개는 한자가 사라진 자리를 외국어(영어가 태반이지만)가 메우게 된다. 그러나 외국어의 위세가 점점 더 커지는 것은 필연적이라 할 만하다. 그 자리에 단단한 우리말이 자리를 잡는다면 더 이상 바랄 게 없지만 그렇지 못한 게 현실이다. 우리말 명사의 70%가 한자어이지만 한자가 뒷받침되지 않은 한자어는 뿌리마저 허약해져 자칫 오용되기 십상이다. 정교한 의미의 분화는커녕 본래 가지고 있는 의미마저도 무너지기 때문이다.

그런 현상은 이미 우리 언어생활에서 넘쳐나고 있다. 가령 ‘임대료’와 ‘임차료’를 구별하지 않고 두루 통용해 쓴다거나 “프랑스 남성이 미국 남성보다 평균 3배 낮은 심근경색 발생률을 보였다.”에서 보이는 ‘배(倍)’의 오용 같은 게 대표적인 사례이다. 입시철만 되면 여전히 “학생들은 마감 시간 직전까지 눈치작전을 펼치다 원서를 접수했다.” 같은 표현이 쓰인다. 학교에서 접수하는 것을 학생이 접수했다고 한다. 그것이 한자 의미 체계가 약해진 탓이라고 하면 지나친 비약일까.

‘입도선매’도 자의적으로 비틀어 쓰는 사례가 많다. “대기업들은 인재를 확보하기 위해 3학년 때부터 장학금을 주는 등 ‘입도선매(立稻先

賣)’ 작전을 펼치고 있다.”처럼 쓴다. ‘입도선매’는 예전에 지주들이 돈에 쪼들린 소작농들에게 여물기도 전에 벼를 미리 ‘팔게’ 강요한 데서 생긴 말이다. 그래서 ‘매(賣)’자가 들어 있다. 일제 강점기에 농민들을 수탈하던 수단으로 쓰인, 아픈 역사가 담긴 말이다. 그나마도 이 말은 ‘팔다’는 뜻의 말인데, 요즘은 대부분 이를 ‘사다(남보다 먼저 확보하다)’라는 뜻으로 쓴다. 말은 시대에 따라 변하므로 이를 ‘입도선매(立稻先賈)’로 바꿔 쓰는 게 차라리 의미에 맞을 것이다. 우리말을 이치에 맞게 정교하게, 논리적으로 쓰려는 노력이 좀 더 필요하다.

‘수입산’이나 ‘부족난’ 같은 정체불명의 말이 걸리지 않고 쓰이는 것도 우리말 진화에 역행한다. 일본산이나 중국산은 있어도 ‘수입산’은 성립하지 않는 말인데, 이런 엉터리 조어가 의외로 많다. ‘부족난’도 ‘공급난, 식량난, 전력난, 구인난, 구직난’처럼 구체적으로 써야 할 것을 어법에 안 맞는 말을 만들어 쓴다. 모두 비논리적인 말들이다.

인사 기사에서 자주 나오는 ‘지명자’도 우리말의 모호성에 한몫하는 말이다. 지명자는 말 그대로 ‘지명하는 사람(nominator)’으로 영어에서는 지명자(nominator)-피지명자(nominee)가 확실히 구별되지만 요즘 우리말에선 이를 엄격하게 적용하기 어려워졌다. 접두사 ‘피(被)-’가 있지만, 한자의 쓰임새가 줄어들면서 ‘지배자-피지배자’ 등 일부 말을 제외하곤 현실 언어에서 활발하게 쓰이지 않기 때문이다. 사전에도 이미 ‘이름을 지정하여 가리키는 자. 또는 그렇게 지명을 받은 자’로 양쪽으로 다 쓸 수 있게 풀이해 놨다. 보험자와 피보험자가 나뉘고 추천자-피추천자, 포상자-피포상자, 초청자-피초청자 등이 다 구별되는 것이지만 현실적으로는 두루뭉술하게 쓰인다.

신문 언어, 나아가 우리말에서 진행되는 개념어의 퇴보는 결국 우리말 의미 체계를 모호한 상태로 퇴행시키는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

런 사례들은 우리말을 잘못 쓰는, 우리말 진화에 역행하는 작은 예에 지나지 않는다.

한자가 사라진 자리엔 외국어가 넘쳐 나고……

말에도 경쟁력이 있는 말과 그렇지 않은 말이 있다. 사람들이 자유롭게 쓰다 보면 불편하거나 이치에 맞지 않는 말은 자연스럽게 힘이 약해진다. 언중의 선택을 받지 못하는 말은 사라진다. 언어의 자유로운 시장에서 말들 간에 경쟁으로 살아남는 말과 도태되는 말이 결정되는 게 언어 생태계의 순리이다. 말을 억지로 틀 지을 필요는 없다는 얘기다.

하지만 언어의 각축 현장에서 일하다 보면 너무 심하다는 생각이 들 때가 있다. ‘핫하다’가 그중 하나다.

“요즘 수도권 주택 시장에서 가장 ‘핫’한 지역이 경기도 화성시 동탄2신도시다.” 한 신문에서 따온 이 문장은 대부분의 신문에서 오십보백보로 나타난다. 좀 더 나아가면 ‘핫 플레이스’, ‘핫 분양’도 나온다. 올 들어 부동산 경기가 나아지고 아파트 분양이 잘된다고 하니 언론에선 너도나도 ‘핫’을 애용한다. 그것도 모자라 기사마다 아찔한 ‘핫 보디’를 넘어 ‘핫한’ 여배우들까지 ‘핫! 핫! 핫!’이다.

이 ‘핫한’ 것의 정체는 무엇인가. 우리말과 외국어가 뒤섞여 더 어리둥절하다. 우리말에서 ‘핫’이 쓰인 말로는 얼른 떠오르는 게 ‘핫바지’이다. ‘핫바지’는 솜을 두어 지은 바지를 말한다. ‘핫’은 ‘솜을 둔’이란 뜻을 더하는 접두사이다. 당연히 투박하고 모양새가 영 나지 않는, 서민의 옷이다. 안타깝게도 요즘 아이들이 이 핫바지는 몰라도 핫보디나 핫팬츠는 알 것이라는 우울한 생각마저 든다.

‘핫’을 국어사전은 ‘짜을 갖춘’의 뜻을 더하는 접두사로도 풀이하고 있다. 홀어미, 홀아비에 대응하는 핫어미, 핫아버가 대표적인 예이다.

‘핫핫’이라 하면 입을 한껏 벌리고 호탕하게 웃는 소리나 모양을 뜻한다. (아쉽게도 ≪표준국어대사전≫에서는 이 말을 북한어로 처리했다.) 요즘은 이 말도 자칫 ‘핫! 핫!(hot! hot!)’으로 알아들을지 모르니 조심해서 써야 한다.

핫바지나 핫어미의 뜻을 아는 젊은이가 얼마나 될지 의문이다. 그러다 보니 혹여 ‘핫’을 우리말 ‘핫’으로 알기보다 영어의 ‘핫(hot)’으로 읽는 것은 아닐까 싶기도 하다. ‘핫바지’도 자칫 ‘핫(hot)바지’로 오인하지 않을까 걱정스럽다. 핫팬츠가 있어서 그럴 개연성은 더하다.

결국 우리말 ‘핫’은 이제 죽어 가는 말이고, 영어의 ‘핫’은 이른바 ‘뜨는 말’인가? 이런 전제가 타당성이 있다면 신문 언어의 미래는 밝다고 할 수 없다.

공공 언어 정책 부처인 문화체육관광부가 한국관광공사와 함께 시행하는 ‘굿 스테이’ 제도도 곤혹스럽다. 증저가 숙박 시설을 육성하기 위해 정부에서 업소를 지정해 지원하는 것은 좋은데, 명칭이 ‘굿 스테이(Good Stay)’다. 정부에서도 ‘굿 스테이’로 홍보하니까 언론에서도 그냥 받아쓴다. ‘우수 숙박 시설’이라 하면 괜찮았을 말이다. 이런 경우 신문에서는 ‘우수 숙박 시설’이란 말보다 ‘굿 스테이’를 먼저 쓰게 된다. 시중에서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명칭이고, 이미 고유 명사화한 용어이기 때문이다. 물론 외국 관광객을 염두에 두고 정했을 것이다. 그렇더라도 ‘굿 스테이(Good Stay)’를 부제 정도로 병기하면 그만이었을 일이다.

올 들어서는 국토교통부가 ‘뉴 스테이(New Stay)’ 정책을 내놨다. 중산층 주거 안정을 위한 제도인데, 내용은 ‘기업형 임대 주택’ 사업이다. 또는 ‘기업형 전·월세 주택’이라 해도 된다. 이 역시 대외 홍보용 이름

은 ‘뉴 스테이(New Stay)’ 정책이다.

공공 기관에서 여전히 ‘영어를 써야 먹힌다’는 인식을 버리지 못하는 한 언론 보도 현장에서 자체적으로 외국어를 걸러 내는 데는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다.

‘독립신문 정신’으로 돌아가야

뉴스 언어는 과학의 언어와 시적 언어의 중간에 놓인 ‘모호한’ 실체이다. 말의 사용이 너무 엄격해서도 안 되고 그렇다고 자의적이어서 더더욱 안 된다. 지나치게 어려운 것도 조심해야 하지만 속되거나 품위를 잃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신문 기자들은 언어 사용에서 언제나 규범과 일탈이라는 보이지 않는 경계선에서 줄타기를 한다.

신문 언어가 외국어에 물드는 것을 경계하고, 정교하고 논리적이며 분화된 말의 사용이 줄어들 것을 걱정하는 까닭은 독자와의 소통을 최우선 가치로 두기 때문이다. 그런 점에서 ‘읽기 쉽고, 알기 쉽게’ 쓰기 사는 그 자체로 경쟁력이다.

‘읽기 쉽고, 알기 쉽게’ 쓴다는 것은 곧 ‘우리말답게’ 쓴다는 뜻이다. 모국어 화자라면 특별히 훈련받지 않아도 누구나 ‘자연스럽게’ 나오는 표현법, 즉 말하듯이 풀어내는 게 ‘우리말다움’의 요체이다. 몸에 익은 말을 쓸 때 신문과 독자가 가장 효율적으로, 정확하게 의미를 주고받을 수 있다. 그런 점에서 글쓰기가 업인 기자들에게 ‘우리말답게’ 글을 쓴다는 것은 평생의 숙제이다.

120여 년 전 《독립신문》 창간호에 ‘읽기 쉽고, 알기 쉽게’란 아이디어가 담겨 있다.

우리신문이 한문은 아니 쓰고 다만 국문으로만 쓰는 거슨 **상하귀천**
이 다보게 흠이라 또 국문을 이리케 귀절을 쪼여 쓴 즉 **아모라도 이**
신문 보기가 쉽고 신문속에 잇는 말을 자세이 알아 보게 흠이라 (중
략) 조선 국문하고 한문하고 비교하여 보면 조선국문이 한문 보다 얼
마가 나흔거서 무어신고 하니 첫지는 비호기가 쉬흔이 도흔 글이요
돌지는 이글이 조선글이니 조선 인민 들이 알아서 빅스를 한문되신
국문으로 써야 **상하 귀천이 모도 보고 알아 보기가 쉬홀터이라**

《독립신문》은 1896년 4월 7일 첫 호를 냈으니 꼭 119년 전 글이
다. 창간호에서 창간사격인 1면 ‘론설(지금의 사설)’을 2개 면에 걸쳐
실었는데, 그중 절반을 할애해 한글 전용과 띄어쓰기 방침 등 우리말의
중요성에 대해 자세히 밝혔다.

한문 대신 국문으로만 쓰고, 그 까닭은 상하 귀천이 다 보게 하기 위
한 것이란 점을 밝혔다. 또 띄어쓰기를 하는 것은 누구나 보기 쉽고 말
을 이해하기 쉽게 하기 위함이란 점을 분명히 했다. 우리 글자가 한문
보다 배우기가 쉬워 좋은 글이고, 한문 대신 국문으로 써야 상하 귀천
다 같이 알아보기 쉽다는 점도 분명히 했다.

한국 언론의 태동기인 당시에 《독립신문》이 이 같은 혁신적인 기
사 쓰기를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창간 회원들이 우리말의 중요성을 명
확히 인식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할 수 있다. 특히 ‘어문 기자’ 주시경
이 참여하지 않았다면 불가능했을 일이다.

신문이 지향해야 할 기사 작성법을 ‘알기 쉽고, 읽기 쉽게’로 제시한
점은 선구적이다. 한글 전용과 띄어쓰기를 실시하는 까닭을 “……상하
귀천이 다보게 흠이라 ……아모라도 이 신문 보기가 쉽고 신문속에 잇
는말을 자세이 알아 보게 흠이라”고 했다. 이미 당시에 불특정 다수인

독자와의 ‘소통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있었다는 증거이다. 신문 언어가 가야 할 방향도 마찬가지이다. ‘알기 쉽고 읽기 쉽게’란 다른 말로 하면 독자 눈높이에 맞춘, ‘독자 친화적 글쓰기’이다.

우리가 제대로 된 맞춤법을 갖게 된 것은 1988년에 현행 〈한글 맞춤법〉을 고시하고, 1989년에 시행하면서부터다. 맞춤법의 역사야 1933년 조선어학회의 〈한글 맞춤법 통일안〉에서 시작하지만 일제 때의 굴곡과 광복 뒤 수십 년간의 혼란을 감안하면 언어, 문자 생활에서 안정된 모습을 찾아간 것은 불과 30년에 지나지 않는다.

공공 언어로서의 신문 언어는 지금 한글 기반의 체제가 자리를 잡았지만 로마자나 일본의 가나도 수시로 한글과 함께 섞인다. 더구나 인터넷을 넘어 모바일, 누리 소통망(SNS) 등 다변화된, 통제되지 않는 미디어 언어와도 싸워야 한다. 신문 언어는 말 그대로 ‘날것’들이 넘쳐 나는 속에서 ‘도전과 응전’을 강요받는 환경에 처해 있다. “상하 귀천이 모두 읽기 쉽고, 알기 쉬운” 글을 쓰는 것, 그것이 신문 언어가 가야 할 길이다. 《독립신문》의 창간호 정신을 되새겨야 할 때다.